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08호 【루계 제24986호】 주체104(2015)년 7월 27일 (월요일)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

사 설

# 위대한 전승의 력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자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을 성대히 경축하고있다.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온 나라의 커다란 관심과 열렬한 축하속에 제4차 전국로병대회가 진행된 격동적인 시기에 맞는것으로 하여 전승절의 경축분위기는 더욱더 고조되고있다.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각지의 인민군렬사묘들을 찾아 전승년대의 영웅전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있다.

7월 27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을 타승하고 조국해방전쟁의 빛나는 승리를 안아온 제2의 해방의 날이다. 이날이 있어 우리 조국과 인민은 강대한 두 제국주의를 때려부신 영웅조선, 영웅적인민으로 온 세상에 존엄떨치게 되였으며 우리 혁명의 백승의 력사가 줄기차게 이어지게 되였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조선의 승리의 전통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 가장 뜨거운 감사와 최대의 영광을 드리고있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수령님께서 간고한 시련의 험한 길을 헤치시며 안아오신 조국해방전쟁에서의 빛나는 승리와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발휘한 1950년대의 시대정신을 영원히 잊지 말고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1950년대의 조국해방전쟁은 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치렬한 전쟁이였다. 미제는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압살하려고 조선전쟁에 저들의 침략군대와 15개 추종국가군대들, 남조선괴뢰군, 일본군국주의자들을 포함하여 200여만명의 대병력을 들이밀었으며 가장 악랄하고 야수적인 전쟁방법과 수단을 다 적용하였다. 수적으로나 군사기술적으로 대비할수 없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하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빛나는 승리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탁월한 전략전술의 승리이며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영웅적으로 싸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백절불굴의 정신력의 승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것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전체 군대와 인민을 미제와의 판가리결사전에로 불러일으키시였으며 전쟁의 매 시기, 매 계단마다 독창적인 작전적구상들과 전법들을 내놓으시여 적들의 수적, 군사기술적우세를 정치사상적, 전략전술적우세로 격파하시였다. 불비쏟아지는 최전선에까지 나가시여 몸소 승리의 작전도도 펼쳐주시고 언제나 싸우는 전사들과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필승의 신심과 무적의 용맹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령도와 육친적인 사랑은 세계전쟁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군사적기적을 낳게 한 근본원천이였다. 걸출한 령장의 두리에 군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열렬한 애국심과 결사의 투쟁의지,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해나갈 때 그 어떤 강적도 때려부실수 있다는것을 실천으로 확증하고 반제반미투쟁의 새로운 앙양의 시대를 열어놓은 바로 여기에 조국해방전쟁승리가 가지는 거대한 의의가 있다. 이때로부터 미제는 우리와의 대결에서 언제나 된매를 맞고 참패만을 당하는 수치스러운 전통을 기록하게 되였으며 우리 조국은 세계《유일초대국》이라고 뽐내는 미제를 걸음마다 통쾌하게 족쳐대는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게 되였다.

창건된지 불과 2년밖에 안되는 청소한 우리 공화국과 군대와 인민을 이끌어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침략을 쳐물리치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전승업적은 조국청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이다.

전승의 축포가 오른 때로부터 60여년의 오랜 세월이 흘러갔다. 이 나날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대를 이어 백두의 선군령장들을 높이 모시고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과의 총포성없는 전쟁에서 련전련승을 떨쳐온 긍지높은 력사로 빛나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선군조선의 승리의 전통을 세기를 이어 빛내이신 희세의 정치군사가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일찌기 인민군대에 대한 현지시찰로 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십성상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반제반미대결전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뛰여난 령군술과 비범한 지략에 의하여 주체적인 혁명무력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가 펼쳐지게 되였으며 《푸에블로》호사건과 판문점사건을 비롯한 미제의 무모한 새 전쟁도발책동들이 걸음마다 격파분쇄되게 되였다. 지난 1990년대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조미핵대결전과 사회주의수호전에서의 승리의 기적을 안아오시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두번다시 구원해주신것은 우리 혁명의 전승사에 특기할 업적중의 업적이다.

선군조선의 전승의 력사와 전통은 오늘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에서 꽃꽃이 이어지고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전승업적과 선군혁명업적을 끝없이 빛내이며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국력을 온 누리에 힘있게 떨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철석같은 의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핵무력건설과 경제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영원한 승리와 번영을 위한 만년기틀이 다져지게 되였다. 최대열점지역의 섬초소를 비롯한 인민군부대들을 찾고 또 찾으시며 전군에 백두산혼련열풍을 일으켜나가도록 하시고 적들의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단호히 맞받아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은 세계를 경탄시키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전승업적과 선군혁명업적을 길이 전하는 전승관, 승리전통교양의 중심지, 반일, 반미계급교양의 거점으로 훌륭히 일떠서고 각지에 인민군렬사묘들이 꾸려져 천만군민의 반제투쟁의지를 백배해주고있다.

세상에는 우리 조국처럼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며 백전백승의 기상을 떨쳐가는 나라는 없다. 전승의 력사와 전통이야말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며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민족의 고귀한 재보이다.

위대한 전승의 력사와 전통은 천만군민을 수령결사옹위전에로 힘있게 떠미는 사상정신적원천이다.

수령에 대한 열화같은 신뢰와 절대적인 충정은 우리의 전승의 력사와 전통에 관통되여있는 근본핵이다. 1950년대의 조국해방전쟁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지닌 수령옹위정신이 얼마나 투철한가를 뚜렷이 실증해주었다. 위대한 수령님은 곧 우리 조국이고 그 품을 떠나서는 순간도 살수 없다는것을 뼈에 새기였기에 인민군용사들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웨치며 불뿜는 적의 화구도 몸으로 막았고 자폭의 길에도 서슴없이 뛰여들었으며 한치한치의 땅을 피로써 사수하였다. 적후천리 밀림속에서도, 총포탄이 작렬하는 속에서 발을 갈고 씨를 뿌리면서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심장을 끓이였고 수령님의 안녕만을 간절히 념원하였다. 최고사령부를 보위하여 한몸이 그대로 성새, 방패가 되고 수령의 명령지시를 목숨바쳐 끝까지 관철한 전승세대들의 투쟁모습은 오늘도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수령결사옹위의 숭고한 화폭으로 깊이 간직되여있다.

항일의 불길속에서 창조되고 조국해방전쟁의 포화속에서 높이 발휘된 수령옹위정신을 명맥으로 틀어쥐고왔기에 우리 혁명이 그처럼 줄기차고 영광스러운 전승사로 빛날수 있었다. 수령의 사상과 권위를 절대화하고 수령의 부름이라면 산악같이 떨쳐나 사나운 격랑도 진펄도 맞받아헤치며 불멸의 위훈을 수놓아온 승리자들이 바로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혁명의 수뇌부는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강대성의 상징이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는 수령결사옹위정신이 만장약되여있다. 우리의 최고존엄을 감히 해치려는자가 있다면 이 세상 그 어디에 있건 무자비한 철추를 안기려는 천만군민의 멸적의 의지는 억척불변이다.

위대한 전승의 력사와 전통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선군의 위력으로 조국수호의 영웅서사시를 창조해나갈수 있게 하는 추동력이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선군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후 앞날을 내다보시며 공화국창건에 앞서 정규적인 혁명무력을 건설하시고 일찌기 자립적인 군수공업을 창설하시였기에 우리는 적들의 불의적인 무력침공에 즉시적인 반공격으로 대처할수 있었고 피어린 결전속에서도 자기 힘을 락판하며 원쑤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길수 있었다. 전후복구건설시기와 사회주의혁명시기를 비롯하여 혁명과 건설의 전기간 우리가 온갖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엄혹한 시련을 박차고 승리만을 떨쳐올수 있은것도 총대중시, 군사선행의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높이 추켜드신 선군의 기치는 조국수호의 강위력한 보검이였고 무적의 힘이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세월이 흐를수록 허리띠를 조이고 굶어 쓰러지면서도, 세계적인 정치풍파속에서도 추호의 흔들림없이 위대한 수령님들을 따라 선군혁명의 한길로 억세게 걸어온것이 얼마나 정당하였는가를 심장깊이 절감하고있다. 총대에 녹이 쓸면 이미 이룩한 승리가 한갖 력사로만 남게 된다는것이 세계사회주의운동사가 새겨주는 진리이다.

오늘 미제는 수십년간에 걸치는 우리와의 대결에서 쓰디쓴 참패만을 거듭해온 력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반공화국침략전쟁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적들이 방대한 무력과 군사장비들을 끌어들이고 전쟁연습소동을 매일과 같이 벌려놓고있지만 우리의 배심은 든든하며 승리에 대한 믿음은 확고하다. 장구한 선군혁명의 폭풍우속에서 우리 인민군대는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강화되였고 온 나라가 금성철벽의 보루로 철통같이 다져졌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에도 전승의 력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여나가려는 백두산대국의 결심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미제가 끝끝내 전쟁의 불집을 터뜨린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의 위력으로 침략자들을 깨끗이 쓸어버리고 승리자의 영예를 더 높이 떨쳐갈것이다.

위대한 전승의 력사와 전통은 군민의 단합된 힘으로 강성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갈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우리 혁명의 장구한 전승의 력사는 군대와 인민이 일심동체가 되면 이 세상에 두려울것도 없고 점령 못할 요새도 없다는것을 가르쳐주고있다.

우리는 군민일치의 위력으로 반제대결전에서뿐아니라 사회주의건설에서도 민족사에 길이 빛날 자랑찬 승리만을 떨쳐왔다. 천만군민이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나가는 장엄한 진군속에서 천리마대고조가 일어나고 우리 조국이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솟구쳐오르게 되였으며 로동당시대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지게 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이 되여 1990년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최악의 역경을 이겨내고 강성국가건설의 장엄한 포성을 울린것은 제국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준 거대한 승리였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과 위훈을 안아온 군민대단결의 위력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오늘의 시대에 더욱더 세차게 분출되고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세기를 주름잡는 새로운 진군속도가 창조되고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펴나고있다. 10년이 아니라 1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련이어 일어나고 세계를 압도하는 최첨단돌파의 자랑찬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서 일어나고있는 전변들은 우리의 군민대단결, 군민협동작전의 무궁무진한 위력에 대한 일대 과시이다.

군대와 인민이 한전호에서 생사를 함께 하며 미제를 쳐물리친 1950년대의 단결의 정신은 강성국가건설의 힘있는 무기이다. 천만군민이 하나의 지향과 의지로 굳게 결속되고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를 실현해나가는 군민대단결이 있기에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새로운 주체100년대는 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강성번영의 전성기로 수놓아지게 될것이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을 진두에 높이 모시고 걸어온 승리의 천만리를 돌이켜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력사와 전통의 줄기찬 계승속에 조국과 민족의 창창한 미래가 있다는 철리를 다시금 깊이 새기고있다. 가야 할 혁명의 길이 아무리 멀고 험난해도 백전백승의 전통을 끝없이 빛내여나가려는 천만군민의 신념은 확고부동하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7.27행진곡》을 힘차게 부르며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최후승리의 한길로 억세게 나아가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전승업적, 선군혁명업적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만년재보로 대대손손 빛내여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전승업적, 선군혁명업적에는 그 어느 위인전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고귀한 혁명생애가 깃들어있으며 백승의 혁명철학과 전략전술, 투쟁과업과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다. 우리가 전승의 력사와 전통을 이어나간다는것은 곧 위대한 수령님들의 업적을 빛내여나간다는것이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자주시대 반제투쟁의 세계사적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사상과 령도업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조국해방전쟁사적지를 비롯한 교양거점들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전승업적과 선군혁명업적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조국의 존엄이 만방에 빛을 뿌리고 누리는 행복이 커갈수록 위대한 전승의 력사와 전통을 마련해주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업적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뼈에 새겨야 한다.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불멸의 태양기를 진두에 높이 휘날리며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시며 우리 당과 혁명, 우리 군대와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지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독창적인 군사사상과 천재적인 군사적예지, 비범한 령군술과 무한대한 정력으로 선군조선의 전승의 새로운 장을 펼쳐가고계신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들과 강성국가건설의 전구들로 종횡무진하시며 세기적인 기적과 변혁을 안아오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두산대국의 최후승리를 확신하고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을 지니고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기에 승리의 7.27은 영원하다는 투철한 신념, 원수님과 함께라면 기쁨도 슬픔도 시련도 영광이라는 고결한 인생관, 원수님의 령도따라 이 세상 끝까지 가려는 일편단심이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꽉 차넘쳐야 한다. 누구나 전화의 영웅전사들처럼 견결한 수령옹위투사가 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천겹만겹의 성새로 굳게 뭉쳐야 한다.

당의 선군정치, 선군혁명로선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인민군대는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이며 억척의 지지점이다. 전군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일하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령군체계를 확고히 세우며 무적의 총대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결사보위하여야 한다. 인민군장병들은 백전백승의 **김일성-김정일**전략전술과 완벽한 실전능력, 백발백중의 사격술과 무쇠같은 체력을 소유한 백두산호랑이들로 튼튼히 준비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전승의 년대에 그 이름을 높이 떨친 근위부대들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오늘의 반미대결전에서 빛나는 군공과 위훈으로 줄기차게 이어나가야 한다.

강력한 국방력은 민족의 자주권수호와 강성국가건설의 군사적담보이다.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국방공업발전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자위적전쟁억제력을 천백배로 다져나가야 한다. 군사중시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야 한다.

전체 인민이 승리자의 긍지드높이 올해의 총공격전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야 한다.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가슴 불태우며 싸우는 고지에 탄약과 식량을 생산보장하던 1950년대의 그 정신은 오늘도 귀중하고 래일도 귀중하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한다. 군자리로 동계급처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뚫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맹렬하게 벌려 당의 구상과 결심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야 한다.

온 나라에 1950년대 조국결사수호정신이 차넘치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야 한다.

혁명의 승리는 사상과 정신력의 승리이다.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전승세대가 발휘한 수령결사옹위정신과 조국수호정신, 대중적영웅주의가 얼마나 고귀한가 하는것을 당원들과 근로자들, 후대들에게 깊이 심어주어야 한다. 누구나 미제와 끝까지 맞서 결판을 보고야말겠다는 확고한 사상적각오를 가지고 반제계급투쟁의 날을 더욱 날카롭게 벼리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이 아끼고 내세우는 전쟁로병들은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 싸운 참다운 애국자, 민족의 장한 영웅들이다. 전사회적으로 전쟁로병들을 존대하고 위해주며 그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따라배우는 기풍을 세워나가야 한다. 특히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1950년대의 영웅적투쟁정신을 본받아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에서 피끓는 청춘을 아낌없이 바치도록 하여야 한다.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위대한 전승의 력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이며 주체혁명위업,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꺾고 원쑤놈들의 피묻은 침략력사에 가장 수치스러운 대참패를 안긴 영웅의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속에 위대한 전승명절을 맞이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에 즈음하여 7월 27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황병서동지, 박영식동지, 리영길동지, 김원홍동지, 서홍찬동지, 노광철동지, 조남진동지, 렴철성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군종, 군단급단위 지휘성원들이 함께 참가하였다.

강대한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대한 영상이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서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량옆에는 당기와 공화국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조선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조선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에 조선인민군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훈장보존실, 사적렬차, 사적승용차보존실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훈장보존실, 을음홀, 사적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돌아보시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백두산총대로 길이 빛내여나가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반제반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평생의 념원이고 우리 민족의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대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말 불타는 맹세를 다짐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 에짚트농업 및 관개근로자총동맹에서 선물을 보내여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에짚트농업 및 관개근로자총동맹에서 선물을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보내여온 선물을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에짚트농업 및 관개근로자총동맹대표단 단장인 싸미 모함메드 레즈크 레즈크 총서기가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동지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 공화국영웅 안동수유가족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전승절에 즈음하여 공화국영웅 안동수유가족인 정일심동포가 26일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그는 우리 조국의 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마련해주시고 숭고한 도덕의리로 조국수호전에 고귀한 생을 바친 혁명선렬들의 삶을 끝없이 빛내여주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제4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 숭고한 경의 표시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제4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이 26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주체의 최고성지, 태양의 궁전을 찾은 그들은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강적을 타승하시고 전대미문의 반제반미대결전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백두산천출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휩싸여있었다.

절세위인들을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영웅조선의 전승신화를 창조하여온 자랑찬 년대기들을 긍지높이 되새겨보며 그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모신 홀에 들어섰다.

그들은 백두산대국의 영상이시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영생홀들에서 그들은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여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은 굳건히 계승되고있으며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가 앞당겨지고있음을 마음속으로 아뢰이며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절세위인들에 대한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열화같은 흠모심이 어려있는 혼장보존실들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사적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대회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하며 후대들에게 죽어도 버리지 않는 혁명신념과 불굴의 조국수호정신을 피줄기로 넘겨주어 백두산대국의 자랑스러운 백승의 전통을 빛내여나갈 굳은 의지를 가다듬었다.

【조선중앙통신】

##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 1950년대 조국수호정신으로 최후승리의 7.27을 안아오자!

조국해방 일흔돐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 대경사를 눈앞에 둔 뜻깊은 전승절 7.27을 계기로 또다시 평양에 모인 우리 전쟁로병들은 꿈결에도 그립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제4차 전국로병대회를 성대히 진행하였다.

력사에는 각이한 전쟁과 함께 수많은 로병들이 있었지만 우리들처럼 생의 말년까지 당과 국가의 극진한 보살핌속에서, 온 나라 인민의 진심어린 존경속에서 혁명에 필요한 세대, 영생하는 세대로 떠받들리우고있는 로병들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도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축하연설을 받아안고 날이 갈수록 더해만지는 당의 사랑과 은정을 더더욱 가슴뜨겁게 절감하면서 우리들은 조국해방전쟁참전자로서 당과 혁명, 조국과 후손들을 위하여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수행하여야 할 자기의 성스러운 사명감을 빼저리게 자각하고있다.

자기 키보다 더 큰 보병총을 메고 남진의 길에 올랐던 10대의 애숭이병사가 어느덧 여든이 넘었다.

세월이 멀리 흘렀다고 해서 가렬한 전화의 그날에 불비속을 헤치며 발휘하였던 조국수호의 정신이 어찌 우리 로병들의 추억으로만 남아있을수 있겠는가.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의 피어린 체험과 투쟁정신이 핵폭탄이나 몇백만톤의 쌀보다도 더 절실하게 필요한 때임을 시대가 우리에게 사무치게 깨우쳐주었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수령결사옹위정신, 애국주의정신, 무비의 대중적영웅주의정신으로 세계전쟁사의 기적을 창조한 1950년대 조국수호정신만 있으면 반드시 조국통일대전의 승리자가 되고 백두의 대업을 기어이 이룩할수 있다는 진리를 새 세대들에게 똑똑히 물려주라고 혁명이 바로 우리에게 절절히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년대에 경의를 드린다》는 고귀한 친필로 전쟁로병들을 시대와 력사앞에 값높이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정히 받들어, 저 멀리 락동강모래불과 남해기슭에 쓰러져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의 피절은 마지막당부와 통일의 날을 끝내 보지 못한채 떠나간 모든 로병들의 간곡한 목소리까지 합쳐 우리 제4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은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 청년들에게 이 호소문을 보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는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이 발휘한 영웅적투쟁정신을 이어받아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대전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전승의 자랑스러운 력사를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 조국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 대결해온 철천지원쑤들과 드디여 총결산을 하고 강성국가의 령마루우에 공화국기를 꽂아야 할 마지막결전을 눈앞에 두고있다.

이 결전에서 기어이 이겨야만 승리의 7.27이 영원히 조선의것으로 될수 있으며 우리모두의 절절한 숙원인 사회주의강성국가가 이 땅우에 거연히 일떠설수 있다.

지금 우리 귀전에는 날마다 해마다 더욱 요란스러워지는 분계선너머 총포소리와 구름속의 미국놈비행기동음, 태평양의 검은 격랑을 일으키는 침략선들의 발동소리가 65년전 6.25전야의 심상치 않던 승냥이울음소리마냥 음산하게 들려오고있다.

핵전쟁연습이요, 제재요 하면서 미제와 괴뢰역적패당들, 일본쪽발이들이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도발들은 마치도 전쟁을 앞두고 덜레스요, 리승만이요 하는따위들이 놀아대던 마지막짓거리들처럼 가증스럽게 느껴지고있다.

귀중한 평화를 지켜, 후손만대의 행복을 지켜,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최후승리를 위하여 반제반미대결전의 최후격전장에 모두가 사생결단하고 떨쳐나설 때는 왔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 청년들이여!

세대와 세기를 이어오는 반제반미대결전을 하루빨리 결판내고 통일된 강성국가를 일떠세우자!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으로 최후승리의 7.27을 안아오자!

력사에는 우리의 조국해방전쟁이 세계전쟁사의 기적이라고 기록되여있다.

그때 제국주의《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15개 추종국가침략군대와 맞선 우리 공화국은 일제가 파괴해버린 빈터우에서 겨우 5년동안 건국을 한 청소한 국가였으며 우리 인민군대도 정규무력으로 된지 2년밖에 안되였었다.

무슨 힘으로 우리가 이겼는가.

참전자의 목소리로 우리는 력사와 후손만대앞에 당당히 자신있게 말한다.

사상의 힘, 정신력으로 우리는 싸워이겼다.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전략전술의 승리이며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의 승리이다.

만고의 빨찌산영웅 김일성장군님께서 가르치시는대로만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를 수령결사옹위의 충신들로 키웠고 이 전쟁에서 무조건 이겨야만 다시는 노예로 살지 않는다는 결사의 각오가 남녀로소모두를 불사신의 영웅군대, 영웅인민이 되게 해주었다.

자기 운명을 자각하고 일떠선 평범한 인간들이 미국놈의 땅크와 대포들을 파철더미로 만들었고 불타는 고지에서도 화선악기연주회를 보란듯이 벌려놓으며 이 땅의 모든 곳을 원쑤들의 함정골, 지옥으로 전변시켰다.

해방전에 살아온 경력도, 입대전 직업도, 나이도 서로 달랐지만 우리 인민군용사들은 총을 잡은 목적이나 군기앞에 다진 맹세는 누구나 꼭같았다.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품속에서 살아온 꿈같은 행복의 5년을 목숨걸고 지키자는것이였다.

김장군님께서 주신 나의 땅, 우리 공장과 우리 학교…

위대한 수령님께서 20성상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찾아주신 그 귀중한것들을 어찌 미국놈에게 빼앗길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것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존함과 떼여놓고 말할수 없었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것 역시 수령님을 떠나 생각조차 할수 없었다.

우리에게 있어서 수령님은 곧 조국이시였고 승리이시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르며 판가리격전에 뛰여든 우리의 총창을 당해낸 적이 없었고 최고사령관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을 품고 육탄으로 날아드는 우리의 돌격을 막아낼 무기가 없었다.

전후의 장장 수십년간 계속되였던 반제반미대결전과 준엄한 고난의 행군에서 우리가 승리할수 있은것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반드시 이긴다는 억척의 신념을 안고 천만군민이 불사신이 되여 수령결사옹위전을 벌렸기때문이다.

《김일성장군 만세!》, 이 신념의 웨침과 더불어 단 4문의 포로 5만대적과 맞섰던 월미도용사들, 수류탄을 안고 적땅크밑에 뛰여든 병사들, 사형장에도 웃으며 걸어나가던 애국자들의 목소리로 새 세대들에게 절절히 호소한다.

조선의 운명이고 심장인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라!

해방후 5년의 10배가 넘는 60여년세월, 이 땅의 인민들이 파연 어떻게 평화롭고 행복하고 존엄있게 살고있는지 진정 뼈에 새겼다면 자기 수령을 하늘처럼 여기고 목숨바쳐 지키라!

선군조선의 태양 김정은원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분이신가를 우리 로병들은 잘 안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극진하게 받들어 모시고 인민을 혈육처럼 사랑하시며 조선을 해치려는 원쑤들에게는 호랑이같으신 그분을 위해서라면 백발의 우리 로병들도 서슴없이 총을 잡고 관가리육박전에 뛰여들 각오로 충만되여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조국통일도 문제없고 강성국가도 반드시 일떠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고 일편단심 김정은동지만을 굳게 믿고 따르자!

백두산대국의 운명이고 미래이며 승리인 금수산태양궁전과 당중앙위원회를 결사보위하는 천겹만겹의 성새가 되자!

당과 수령의 명령지시라면 불뿜는 적의 화구도 가슴으로 막아 돌격로를 열어제낀 전화의 용사들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과 당의 결정지시를 사생결단하여 무조건 끝까지 결사관철하는 전위투사가 되라!

지금 우리의 가슴에는 사랑하는 전우 리수복영웅이 남긴 시구절이 살아있는 그의 목소리마냥 절절히 메아리치고있다.

…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이지만
나의 청춘을 바치는것처럼
그렇게 고귀한 생명
아름다운 희망
위대한 행복이
또 어디 있으랴!

이것은 조국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후대들에게 가르쳐주는 우리 세대의 제일 귀중한 유산이다.

폭탄이 튀고 탄알이 비발치는 가렬한 전장에서만 애국을 웨치는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는 일터와 학교, 마을들에서 총포성없는 전쟁을 하고있다.

어제날 우리 부모형제를 쏘아죽이고 찢어죽이던 원쑤들이 오늘은 우리 공화국을 통채로 말리워죽이려고 미쳐날뛰고있다.

그 무슨 《경제제재》를 고아대며 발악하는 원쑤들이 보란듯이 더 잘살자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기대를 돌리고 땅을 가꾸고 아이들을 키우는 일이 그래 전쟁이 아니란 말인가.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여, 내 나라의 모든 초소와 일터들마다에서 순간순간 애국으로 숨쉬고 애국으로 일하며 배우고 투쟁해나가자!

그대들이 밟고 사는 이 땅의 한줌한줌의 흙마다에 슴배여있는 용사들의 애국의 넋앞에 부끄럽지 않게 진실하고 열렬하게 이 땅을 사랑하라.

조국의 단 한치의 땅도 원쑤에게 내여주지 않기 위하여 팔다리가 부서졌어도 력으로 증기압철을 누르고 《공화국이여, 번영하라!》고 소리높이 웨치며 마지막수류탄을 터치던 전화의 병사들이 지켜보고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이여!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 싸운 전화의 용사들처럼 조국통일대전에서 혁혁한 군공을 세워 고향과 부모, 스승앞에 떳떳한 근위병, 영웅이 되라!

전체 인민들이여!

한발의 포탄이라도 더 만들어내기 위하여 불사신처럼 싸우던 군자리로동계급, 숨을 거두면서도 전선으로 달리는 기관차의 가감변을 놓지 않은 전시기관사들의 그 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여야 한다.

미국놈비행기가 백번 폭격하면 백번 다시 땅을 갈고 씨를 뿌리던 녀성농민들, 원쑤의 총칼에 꽃망울같은 목숨을 잃으면서도 《사랑하는 나의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부르던 나어린 소년근위대원들의 백절불굴의 모습들을 자나깨나 잊지 말라.

우리 수령님께서, 우리 장군님께서 한생을 다 바쳐 지켜주시고 빛내여오신 이 땅을 피끓는 가슴으로 그러안고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활활 불태우며 목숨바쳐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아름답고 더욱 강하게 가꾸어나가라!

키워준 당과 국가의 은혜를 순간도 잊지 말고 심심산골, 외진 섬 그 어디서, 그 무엇을 하든 자기 맡은 초소에서 조국의 지혜와 힘이 되고 당의 손발이 되여 《내가 지켜선 조국》을 노래부르며 자신을 깡그리 바치자!

공화국의 아들딸들이여, 우리앞에는 여전히 시련도 많고 곤난도 많다.

하지만 전쟁시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때 우리는 고지우에 혼자 남았어도 원쑤의 떼무리를 향해 총창을 비껴들고 이렇게 소리쳤다.

《덤벼들테면 덤벼들라! 인민군병사 단 한사람이 남아있는 한 이 고지는 조국의 고지로 남아있을것이다!》

용감한 사람, 완강한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법이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만난을 이겨내고 용감하게 최후승리를 향하여 돌진하라!

자기 단위앞에 맡겨진 당정책을 집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적들에게 진지를 내놓은 병사라고 생각하라.

전기가 없소, 자재와 설비가 없소 하고 우는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바로 자신이 전쟁때 비행기가 없고 포탄이 모자라서 싸우지 못하겠다던 패배주의자나 다름없다는것을 명심하라.

탄알에도 사상을 재우면 바위를 깰수 있다는 우리 당 사상론의 정당성과 위력을 우리 전쟁로병들은 전화의 불길속에서 심장으로 체험하였다.

이발로 원쑤의 멱살을 물어뜯어서라도 이겨야겠다는 사생결단의 각오가 있었기에 우리들은 보총으로도 비행기를 쏴떨구었고 어뢰정으로도 바다의 《섬》이라 으시대는 미국놈의 중순양함을 까부시였다.

그 정신으로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따라 전후복구건설을 하고 천리마도 탔으며 그 정신으로 위대한 장군님을 따르며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고 락원의 길을 열었다.

우리야 위성도 핵무기도 제힘으로 만들어낸 조선사람들이 아닌가.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조선을 세계우에 올려세우자!

1950년대처럼 군민대단결로 만난을 헤치고 기적을 창조하자!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병사도 과학자도 로동자도 농업근로자도 모두 일심동체가 되여 산악같이 떨쳐나 온 세상이 부럽도록 우리 조선을 세계에서 제일 강하고 아름답고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로 일떠세우자!

조국의 힘이며 젊음인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최후승리의 7.27은 다름아닌 청년들, 당신들의것이다.

백두에서 시작되여 줄기차게 이어져온 혁명의 대, 항일대전과 조국해방전쟁을 거쳐 꽃꽂이 지켜주시고 빛내여오신 승리의 전통이 어떻게 계승되는가 하는것은 오늘의 조선의 주인공들인 청년들의 정신과 투쟁에 달려있다.

자기들이 어떤 원쑤들과 맞서고있는가를 순간도 잊지 말라!

미국놈들, 계급적원쑤들의 본성은 우리 세대가 잘 안다.

그놈들은 무덤속에 들어갈 때까지도 승냥이이며 3대, 4대를 지난 후에들도 역시 승냥이이다.

총포로 우리 세대를 어찌지 못한 놈들은 지금 너절한 부르죠아날라리풍으로 조선의 새 세대들을 녹여보려 하고있다.

전통의 계승은 곧 정신의 계승이다.

원쑤의 본성이 추호도 변하지 않았는데, 원쑤들의 총구가 오늘도 우리의 심장을 겨누고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증오와 복수심이 변할수 있고 흔들릴수 있단 말인가.

모두가 조군실, 강호영, 안영애와 같은 당의 참된 아들딸, 사상적으로, 계급적으로 투철한 선군조선의 훌륭하고 미더운 젊은이들이 되라!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제국주의자들의 썩어빠진 사상문화가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라!

당과 생각도 발걸음도 같이하고 당이 부르면 물불을 가리지 않으며 조국이 요구하면 청춘도 생명도 웃으며 기꺼이 바치는 정직하고 견실하고 용감한 청년들이 되라!

청년들이여, 겨레의 숙원, 민족의 한을 위대한 김정은원수님시대의 청년들, 당신들이 풀어달라!

원쑤들에게 무참히 살륙당한 그대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남해기슭에서 돌아오지 못한 우리 전우들, 모든 전쟁로병들과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당부한다.

철천지원쑤 미제침략자들을 마지막 한놈까지 철저히 소멸하고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라!

우리 조선의 힘, 우리 인민군대의 무장력은 1950년대와 대비도 되지 않게 강하다.

우리에게 있을것은 다 있다.

우리의 국력이 지구와 우주를 뒤흔들고 우리의 탄도탄이 바다속에서 솟구치는 희한한 사변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 로병들은 너무 기뻐 창문을 활짝 열고 《김정은장군 만세!》를 소리높이 부르곤 한다.

우리의 핵무기도 미싸일도 강하지만 적들이 제일 두려워하는것은 세상에서 제일 강하신 백두산장군의 슬하에 뭉쳐있는 조선청년들의 정신과 힘, 젊음으로 약동하는 우리 조국, 청년강국의 위력이다.

전쟁시기 육탄영웅들은 거의 모두가 피끓는 10대, 20대 청춘들이였다.

그들의 피가 진하게 스민 공화국기를 오늘의 미덥고 용감한 청년들에게 엄숙히 넘겨준다.

만약 결전의 시각이 닥쳐온다면 온 나라 청년들이여, 너도나도 조국통일성전에 용약 떨쳐나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단숨에 남녘땅을 해방하고 제주도 한나산에 공화국기를 꽂으라!

침략의 아성인 태평양건너 미국까지 짓뭉개버리고 위대한 수령님들께 조국통일보고를 삼가 드리는 그날 최후승리의 7.27경축포를 가슴후련히, 통쾌하게 터쳐달라!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 청년들이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충정으로 받들어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고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이 땅우에 세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군민대단결의 위력,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으로 용감하고 완강하게 싸워 최후승리의 7.27을 반드시 안아오고 백두의 대업을 끝까지 완수하자!

주체104(2015)년 7월 27일

**제4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일동**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20일부터 22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김정은령도자께서 도, 시,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평양시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련못무궤도전차사업소 역전대대 운전수 허명금과 서성구역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2가공직장 직장장 신순태를 만나주시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사회주의조국을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으로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앞에 맡겨진 숭고한 자각과 본분을 다해나가라고 그들을 고무격려해주시였다.

로씨야의 리아 노보스찌통신, 신문들인 《로씨스까야 가제따》, 《꼼쏘몰스까야 쁘라우다》, 《모스꼽스끼 꼼쏘몰레쯔》, 《꼼메르싼뜨》, 《아르구멘띠이 팍따》, 엔떼웨TV방송, 즈베즈다TV방송, 스뿌뜨니크방송, 인터네트통신들인 가제따. 루, 레그늄, 루스까야 슬루쥬바 노보스쩨이, 인터네트TV 《미르 24》, 라오스신문들인 《비엔티안 마이》, 《비엔티안 타임스》, 만마TV방송, 세네갈신문 《러 뽀쁠래르》와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 브라질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들도 이 소식을 보도하였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고 철도현대화의 불길을 지펴주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제1위원장께서 평양의 전기기관차공장을 시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첨단기술이 도입된 전기기관차를 더 많이 만들어낼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기 위해서는 나라의 철도를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싱가포르 TV《아시아소식통로》,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도 우와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로씨야, 라오스, 만마, 브라질, 싱가포르의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을 모시였다.

# 조선해방 70돐,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준비위원회

## 여러 나라에서 결성

조선해방 70돐,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타이준비위원회가 16일에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타이주체사상연구조직 위원장 쏭치트 풀랄이, 부위원장으로 타이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차나이 몽언이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조선의 뜻깊은 날들을 맞으며 친선모임, 영화감상회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조선해방 70돐경축 벨라루씨준비위원회가 20일에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벨라루씨공산주의근로자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인 김일성김정일명칭 전국벨라루씨 조선인민의 친우협회 상설상무위원회 위원장 엘. 슈플리니꼬브가 선출되였다.

벨라루씨공산주의근로자당, 김일성김정일명칭 전국벨라루씨 조선인민의 친우협회, 《련맹과 련맹공산당을 위하여》전국사회련합, 《조국과 쓰딸린을 위하여》국제사회련합, 《민주주의와 사회적진보, 정의를 위하여》사회련합을 비롯한 정당, 단체의 인사들이 준비위원회에 망라되였다.

준비위원회는 8월 15일에 즈음하여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조선해방 70돐경축 스웨리예준비위원회가 17일에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들로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 위원장 크리스테르 룬드그렌과 스웨리예공산당 피테보리위원회 집행위원 다니엘 우프스트룀이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8월 15일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해방업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

# 전승혁명사적관 참관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우당위원장, 내각,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26일 전승혁명사적관을 참관하였다.

참관자들은 먼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상을 모신 모자이크벽화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뜻깊은 전승절을 앞두고 이곳을 찾은 책임일군들은 독창적인 군사사상과 전략전술, 비범한 령군술로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때려부시고 현대전쟁사에 특기할 군사적 기적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전승업적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사적관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혁명사적물들과 사적자료들을 보면서 참관자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령도하신 절세위인의 빛나는 혁명생애를 감회깊이 되새기였다.

엄혹한 전시의 환경과 조건에서도 전반적무상치료제를 비롯한 인민적시책들을 실시하도록 하시고 전후복구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천출위인상을 보여주는 사적자료들과 사적물들은 참관자들의 가슴을 뜨거움에 젖어들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불철주야로 사업하시던 집무실과 군사위원회사업을 지도하시던 집, 갱도 등 사적건물들앞에서 참관자들은 오래도록 걸음을 옮기지 못하였다.

전화의 불길속에서도 끄떡하지 않으시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필승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신 절세위인의 담대한 기상과 배짱, 언제나 군인들과 인민들속에 계시며 그들에게 은정을 베풀어주신 자애로운 어버이의 크나큰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참관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전승업적과 선군혁명업적을 가슴깊이 새기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선군조선의 백전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이어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 박봉주총리

## 룡성-서포-력포철길주변 살림집건설장 현지료해

박봉주내각총리가 락랑구역 동산동지구에 나가 룡성-서포-력포철길주변 살림집건설정형을 료해하였다.

조국해방 일흔돐과 당창건 일흔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를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일 일념을 안고 살림집건설에 참가한 건설자들은 공사속도를 부쩍 높이고있다.

총리는 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령이라면 단숨에의 기상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는 인민군대의 당정책결사관철의 정신을 적극 따라배워 살림집건설을 다그치며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립장에서 건설물의 질을 높일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어 건설자재들을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한 대책이 토의되였다.

한편 총리는 평양승강기공장과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을 돌아보았다.

총리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공장들에서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다그치고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여 승강기와 새형의 무궤도전차를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박봉주총리 평양승강기공장 현지료해

#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경축 중앙보고대회 진행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경축 중앙보고대회가 26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뜻깊은 전승절을 맞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4차 전국로병대회에서 하신 축하연설을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온 나라 천만군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전승업적과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의 고귀한 정신을 가슴마다에 깊이 새기고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불세출의 전설적위인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령활무쌍한 전략전술, 탁월한 령군술이 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세상을 놀래우는 미증유의 군사적기적을 창조하고 자랑찬 전승의 날, 제2의 해방의 날을 안아올수 있었다.

대회장인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교양마당은 백두산천출위인들을 높이 모시고 반제투쟁의 불멸의 영웅서사시를 창조하며 세기와 세대를 이어 선군조선의 자랑찬 전승의 력사를 빛내여온 승리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설레이고있었다.

대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영웅적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영광이 있으라!》라는 구호판들이 대회장에 세워져있었다.

기발게양대들에는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들이 나붓기고있었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중심주제 《승리》상량옆에는 조선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대회에는 제4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과 당, 무력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 일군들, 영웅, 접견자들, 제대군인, 인민군후방가족, 원군공로자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와 사회주의조국에 제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참가하였다.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 무관들, 외국손님들이 대회에 초대되였다.

김영남동지, 황병서동지, 박봉주동지, 최룡해동지, 최태복동지, 박영식동지, 리영길동지, 양형섭동지, 리용무동지, 오극렬동지, 김원홍동지, 김양건동지, 곽범기동지, 김평해동지, 로두철동지, 조연준동지와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무력기관, 성, 중앙기관 일군들, 전쟁로병들, 당의 선군혁명위업수행에서 모범적인 군대와 사회의 일군들, 공로자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대회는 《7.27행진곡》주악으로 시작되였다.

인민무력부장인 륙군대장 박영식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대회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전승령도사와 선군혁명업적을 후손만대에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백전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굳건히 이어나감으로써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새 승리를 이룩해나갈 참가자들의 혁명적기상이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였다.

대회는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전승의 업적과 전통을 영원히 빛내여나가자

## 중앙보고대회에서 한 인민무력부장인 륙군대장 박영식동지의 보고

오늘 우리는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최후승리에 대한 굳은 신심에 넘쳐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을 성대히 경축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꺾고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쟁취한 주체42(1953)년 7월 27일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제2의 해방의 날이며 우리 조국과 인민의 천만년미래를 지켜주고 담보해준 영원한 전승절입니다.

미제의 무력침공을 물리치고 민족의 자주권을 고수한 승리의 7.27이 있어 우리 조국의 존엄높고 영광스러운 오늘이 있고 무궁번영할 미래가 있습니다.

뜻깊은 전승절을 맞으며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임에 의하여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불멸의 위훈을 세운 항일혁명투사들과 전쟁로병들, 전시공로자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바친 인민군렬사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사회주의조국의 천리방선초소들과 강성국가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조국해방 일흔돐과 당창건 일흔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총공격전을 과감히 벌려나가고있는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과 로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 대원들, 전체 인민들에게 전투적인사를 보냅니다.

동지들!

우리 인민의 반제투쟁력사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시여 가장 간고한 조건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의 전통을 창조하고 대를 이어 계승하여온 영광스러운 력사입니다.

이 성스러운 로정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조국해방전쟁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미제를 타승하는 군사적기적을 이룩한것입니다.

시대는 멀리 전진하고 력사적환경은 달라졌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한 전승의 업적은 반제자주시대의 불멸의 위훈탑으로 더욱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습니다.

일제의 식민지기반에서 갓 해방된 우리 인민과 요람기에 있던 청소한 우리 공화국에 있어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은 실로 힘겨운 전쟁이였으며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사생결단의 싸움이였습니다.

미제는 조선전쟁에 현대적무기와 최신군사기술로 장비된 저들의 방대한 륙해공군무력과 15개 추종국가군대, 남조선괴뢰군과 일본군국주의자들을 포함한 200여만의 대병력을 동원하고 가장 잔인하고 야만적인 전쟁방법을 다 적용하였으나 결코 우리 인민을 당해낼수 없었습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것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전체 군대와 인민을 미제와의 판가리결전에로 불러일으키시였으며 전쟁의 매 시기, 매 계단마다 세계전쟁사가 알지 못하는 독창적인 전략전술과 전법으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부르심을 받들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은 가렬처절한 전쟁의 전기간 불사신처럼 싸워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굳건히 수호하고 미제에게 100여년의 피묻은 침략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수치스러운 대참패를 안겼습니다.

항일혁명전쟁의 승리에 이어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가 이룩됨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반제반미대결전에서 백전백승을 떨치는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승리의 전통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전략전술, 전법으로 적들을 통쾌하게 타승한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의 전략전술과 전법은 적들의 그 어떤 수적, 기술적우세와 《무기만능론》도 정치사상적, 전략전술적우세로 타승할수 있는 필승불패의 보검이라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의 전기간 전쟁승리의 결정적요인은 군대와 인민의 정신도덕적우월성에 있다는 주체적관점으로부터 출발하시여 당과 군대,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군인들과 인민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으며 군인중심의 독창적인 전쟁리론과 전법들을 창조하시고 그 구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습니다.

전 전선에서의 련속타격과 포위섬멸전, 정규부대들에 의한 적후 제2전선의 형성, 적극적인 진지방어전과 비행기사냥군조운동, 땅크사냥군조운동을 비롯하여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군사전법들은 주체적인 전쟁리론과 전략전술에 기초한 전무후무한 전법들이였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전쟁의 고귀한 경험을 현대전의 특성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키신 주체적인 전략전술과 전법들에 의하여 미제의 발악적인 공세들은 모두 물거품이 되고 악명높은 《상승사단》들이 괴멸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화의 나날 우리 군대와 인민에 대한 가장 숭고한 사랑과 헌신의 서사시로 전승령도사를 수놓으시였습니다.

서울과 수안보를 비롯한 격전장의 전사들을 찾아 5만 1 200여리의 위험천만한 화선강행군길을 헤쳐가시며 새로운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고 뜨거운 사랑과 믿음으로 인민군전사들과 인민들을 영웅적위훈에로 불러일으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면불휴의 헌신과 로고에 의하여 전쟁승리의 전환적국면들이 열리였습니다.

동서고금의 전쟁사에 없는 독창적인 군사전략전술사상과 전법, 탁월한 령군술로 전쟁의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시고 미제의 살인장군들과 제노라 하는 제국주의군사가들이 짜낸 모든 군사작전들을 여지없이 격파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20세기를 대표하는 가장 걸출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불세출의 전설적영웅이십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며 제시하신 주체적인 전략전술사상과 전법들은 오늘도 혁명전쟁승리의 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불멸의 등대로 빛을 뿌리고있으며 치렬한 반제전선에서 자주와 정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귀중한 교범으로 되고있습니다.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승리의 전통은 수령의 두리에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뭉쳐 불타는 애국심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으로 백승을 떨쳐나가는 전민항쟁의 전통입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강대한 적을 타승할수 있은것은 자기의것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자기 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때문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은덕으로 해방된 조국에서 땅과 공장의 주인이 되여 처음으로 참된 삶을 누려온 우리 인민들에게 있어서 조국은 곧 위대한 **김일성**동지이시였으며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여 전쟁에서 이긴다는 믿음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마다에 억척같이 자리잡은 신념이였습니다.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자기 살붙이처럼 사랑하고 자기 고향과 마을, 자기 제도를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며 결사항전을 벌린 우리 군대와 인민의 수령옹위정신, 조국수호정신, 대중적영웅주의는 자주와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인민대중이 발휘할수 있는 최고의 정신력으로 세계전쟁사에 력력히 아로새겨져있습니다.

조국의 귀중함을 뼈저리게 체험한 인민군전사들은 불타는 1211고지와 351고지, 락동강과 월미도를 비롯한 격전장마다에서 《당과 수령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웨치며 피끓는 가슴으로 적의 화구를 막아 돌격로를 열고 입에 수류탄을 물고 적진에 돌입하였으며 한몸이 그대로 폭탄이 되여 조국의 촌토를 사수하였습니다.

단 4척의 어뢰정으로 미제의 중순양함을 격침시키고 프로펠러추진식비행기로 적들의 분사식비행기들을 추풍락엽으로 만들었으며 한개 중대력량으로 5만의 대적과 맞서 싸운 조국해방전쟁의 수많은 영웅적위훈들은 자기 최고사령관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우는 군인대중의 정신력이야말로 승리를 떨치는 무한대의 힘이라는것을 실증하였습니다.

후방의 인민들도 승리를 굳게 믿고 향토를 지켜 용감히 싸웠으며 적들의 폭격과 포격이 계속되고 하늘땅이 불타는 속에서도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전시생산과 전선원호를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였습니다.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창조한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은 우리 혁명의 더없이 귀중한 사상정신적재보이고 우리 시대 반제혁명전쟁의 승리를 위한 최강의 무기이며 사회주의건설의 보람찬 년대마다 새로운 시대정신이 계속 창조되게 한 력사적원천입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은 싸우는 우리 인민을 적극 지지성원해주었으며 우리는 이에 대하여 언제나 잊지 않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이 피로써 쟁취한 조국해방전쟁에서의 빛나는 승리는 조국의 운명을 생사존망의 위기에서 두번다시 구원하고 태양민족의 찬란한 미래를 열어준 민족사적사변입니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우리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 민족의 자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으며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위대한 사상과 리념을 위하여 싸우는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힘으로도 굴복시킬수 없다는것을 세계앞에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당은 풍부한 반제투쟁경험을 쌓은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장성강화되고 인민군대는 무적필승의 혁명적무장력으로 자라났으며 인민대중이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고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혁명의 주체가 비상히 강화되였습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미제의 《강대성》에 대한 신화에 종지부를 찍고 미제가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았습니다.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로 하여 미제의 제3차 세계대전도발책동이 저지파탄되고 인류가 핵전쟁의 참화로부터 구원되였으며 세계적범위에서 반제반미투쟁의 새로운 앙양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였습니다.

조국과 민족, 인류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가장 간고한 혁명전쟁을 령도하시여 세계반동의 원흉이며 괴수인 미제를 타승하시고 우리 혁명과 인류의 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전승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승리의 전통은 군사의 영재이시며 절세의 선군령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되였습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전후 60여년동안 미제와 정면으로 맞서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린 총포성없는 전쟁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에 못지 않게 간고한 투쟁이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적들의 무장도발이 매일과 같이 감행되던 지난 년대들에 무비의 담력과 지략으로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과 대형간첩비행기 《EC-121》사건, 판문점사건을 비롯한 미제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리시고 영웅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제국주의반동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이 극도에 이르렀던 지난 세기 90년대에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펼치시고 초인간적인 의지로 선군장정의 길을 이어가시며 불패의 군력을 다져주시고 반미대결전을 련전련승에로 이끄시여 우리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해주시고 조선혁명의 승리의 전통을 빛내이시였습니다.

력사에 류례없는 고난과 시련속에서 선군의 기치높이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수호하시고 이 땅우에 세계적인 군사강국, 당당한 핵보유국을 일떠세우시여 민족만대의 번영을 위한 담보를 마련하신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만이 이룩하실수 있는 력사의 기적이며 1950년대의 전승과 더불어 민족사에 찬란히 아로새겨질 영원불멸의 업적입니다.

5면으로 계속

#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전승의 업적과 전통을 영원히 빛내여나가자

4 면 에 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전승업적, 선군령도업적을 굳건히 고수하시며 새로운 주체100년대를 위대한 승리와 위훈의 년대로 빛내여나가시는 백두의 천출명장이십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백두의 대업을 선군의 총대로 끝까지 완성하실 철석의 의지를 지니시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밝혀주신 군인대중중심의 군건설사상과 전략전술, 령활하고 기묘한 전법을 군건설과 군사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시며 군력강화의 최전성기를 펼치시였습니다.

최대열점지역인 판문점과 까칠봉초소, 섬방어대들에도 서슴없이 나가시고 부대들의 전투훈련과 전략무기의 시험발사도 몸소 조직지도하시며 전군을 조국결사수호와 싸움준비완성에로 불러일으키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무비의 담력과 천재적인 지략, 뛰여난 령군술은 세계를 경탄시키고 적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뜻깊은 올해의 전승절을 맞으며 마련하여주신 제4차 전국로병대회를 계기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조국수호의지는 백배해지고 필승의 신심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또 한분의 백두산장군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반미대결전을 진두지휘하시기에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을 걸음마다 통쾌하게 족쳐대는 조선의 자랑스러운 승리전통과 된매를 맞고 녹아나기만 하는 미국의 수치스러운 패배전통은 앞으로도 영원히 흐르게 될것이라는것이 승리의 7.27을 맞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이 다시금 깊이 새겨안은 철의 진리입니다.

전승절을 경축하는 이 뜻깊은 자리에서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열화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력사를 창조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며 선군조선을 필승의 한길로 현명하게 령도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인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조국해방전쟁에서 이룩된 전승의 업적과 전통을 영원히 빛내여나가며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는 수령님께서 간고한 시련의 험한 길을 헤치시며 안아오신 조국해방전쟁에서의 빛나는 승리와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발휘한 1950년대의 시대정신을 영원히 잊지 말고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세계전쟁사에는 자주와 정의를 위한 수많은 혁명전쟁들이 기록되여있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과 같이 필승불패의 전통과 력사를 가지고 있는 긍지높은 군대와 인민은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만을 떨치는 영광스러운 전통의 계승자가 된 크나큰 긍지를 간직하고 선군혁명승리의 만년보검인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전승업적, 선군혁명업적을 대를 이어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길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백두산대국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십니다.

모든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반미대결전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드팀없는 의지를 간직한 김정은시대의 신념의 강자, 견결한 조국수호자가 되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보다 더한 시련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당중앙이 가리키는 선군혁명의 한길로 언제나 곧바로 힘차게 나아가야 하며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와 금수산태양궁전을 천겹만겹의 성새, 방패가 되여 결사옹위하여야 하겠습니다.

승리의 전통을 영원히 빛내이자면 전체 군대와 인민이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을 굳건히 계승해나가야 합니다.

인민군대에서는 자기 최고사령관을 위하여 한목숨바쳐 싸우는 결사옹위의 전통이 전군에 꽉 차넘치게 하며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과 근위부대운동을 힘있게 벌려 군력강화의 4대전략적로선과 3대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선군혁명의 주력군, 척후대로서의 위용과 면모를 더욱 훌륭히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당이 제시한 《훈련혁명을 일으켜 인민군대를 백번 싸우면 백번 다 이기는 무적필승의 최정예혁명강군으로 만들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쟁의 불비속을 누벼나가던 용감무쌍한 근위병들의 투쟁정신으로 백두산훈련열풍을 더욱 고조시키며 조국방선을 철벽으로 지켜야 하겠습니다.

1950년대의 군자리정신으로 국방공업발전에서 보다 큰 혁신을 일으켜 인민군대의 무장장비를 더욱 현대화하며 온 사회에 군사중시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일단 유사시에는 전체 인민이 조국수호의 전민항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하겠습니다.

청년강국의 주인공인 청년들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싸운 리수복, 강호영, 조군실영웅들처럼 우리 당을 맨 앞장에서 결사옹위하며 사회주의조국수호와 강성국가의 문패를 달기 위한 투쟁에서 기수가 되고 선봉대, 돌격대가 되여야 하겠습니다.

각급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전세대가 이룩한 승리의 전통을 통한 교양을 그 어느때보다 강화하여 그들모두가 1950년대에 조국을 사수하기 위한 전민항쟁을 벌리던 그 정신으로 오늘의 대고조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인 전쟁로병들과 전시공로자들을 혁명선배로,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나라의 보배로 존경하며 우대하는 사회적미풍을 더 활짝 꽃피워야 합니다.

전체 군대와 인민은 반미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진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조국해방 일흔돐과 당창건 일흔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여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전쟁의 포화가 멎은 때로부터 60여년이 흘러갔으나 평화는 아직 깃들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첨단전쟁장비들을 계속 들이밀고 남조선괴뢰들을 동족대결에로 부추기고있으며 우리를 겨냥한 핵전쟁연습과 제도전복책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면서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습니다.

제2의 6.25뒤에는 제2의 7.27이 있습니다.

지난 조선전쟁이 미제를 내리막길에 몰아넣었다면 제2의 조선전쟁은 미제에게 종국적멸망을 안겨주게 될것입니다.

만약 미제가 력사적으로 우리앞에 바친 항복서들에서 교훈을 찾지 않고 새 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 혁명무력은 침략자들을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게 모조리 격멸소탕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이룩하고야말것입니다.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전승의 업적과 전통을 영원히 빛내이며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아갑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

# 숭고한 사랑으로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신 강철의 령장

##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아서 (3)

뜻깊은 전승절을 맞는 이 시각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국해방전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승리의 7.27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뜨겁게 돌이켜본다.

인류력사에는 수많은 전쟁사와 함께 그 전쟁들에서 이름을 떨친 명장들이 기록되여있다.

그러나 동서고금의 그 어느 전쟁사의 갈피에도 우리 수령님처럼 군인들과 인민들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열화같은 사랑과 믿음으로 빛나는 승리를 안아오신 위대한 령장은 일찌기 없었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빛나는 승리, 그것은 불세출의 강철의 령장, 희세의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담력과 배짱, 독창적인 군사전법과 비범한 령군술이 안아온 승리인 동시에 한없이 고결한 어버이사랑이 낳은 결정체이다.

우리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참관하면서 이것을 더욱 절감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고결한 인품과 덕망을 지니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작전관에 들어선 우리는 조국해방전쟁 제1계단시기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뛰여난 군사적지략, 무비의 담력과 비범한 령군술로 침략자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주고 전쟁이 시작된지 얼마 안되는 짧은 기간에 세계전쟁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군사적기적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해설을 듣고 다음로정으로 향하였다.

거기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해방전쟁 제2계단의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신 사적자료들과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위대한 수령님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념을 지니고 싸워온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투쟁자료가 전시되여있었다.

전시물들을 돌아보던 우리는 한벌의 모직외투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강사는 그 모직외투앞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리승기박사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당을 따라 어려운 후퇴를 하고있다는것을 헤아리시고 적비행기의 공습이 심한 조건에서 자동차보다 달구지를 타고가는것이 낫다고 하시면서 달구지와 이 외투를 보내주시는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주시였습니다.》

미제침략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모험적인 무력증강책동으로 하여 조국앞에 준엄한 시련이 닥쳐왔던 그 시기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시고 바쁜 나날을 보내시는 속에서도 한 과학자와 그 가족들의 운명을 지켜주신 위대한 사랑의 력사를 전하며 오늘도 소중히 보관되여있는 모직외투,

강사의 해설을 듣는 참관자들의 얼굴마다에는 이민위천의 사상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어렵고 복잡한 전시조건에서도 인민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사랑으로 보살펴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뜨거운 경모의 정이 흘러넘쳤다.

한밤중에 총공격을 들이대면 인민들의 생명재산이 피해를 입을수 있다고 하시면서 서울해방공격작전을 날이 밝은 후에 벌리도록 하시고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서울시민들의 땔나무를 해결해주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신 우리 수령님, 자신께서는 수수한 농가에서 잡곡밥을 잡수시면서도 우리 인민들에게는 자그마한 불편이 있을세라 량곡과 생활필수품, 로동보호물자에 이르기까지 다 보내주시고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하도록 하신 그 하많은 사랑의 이야기들은 오늘도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우리는 가렬한 전화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들에게 돌려주신 뜨거운 사랑을 되새기며 참관을 이어갔다.

강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인민군전사들과 인민들에게 베풀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고 하며 참관자들을 적후 제2전선부대들의 투쟁자료가 전시되여있는 곳으로 이끌어갔다.

참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추운 겨울에 여름군복을 입고 싸우는 전사들을 념려하시여 솜옷을 보내주신 자료들과 어버이의 그 사랑에 목메여 흐느끼며 충정의 결의를 다지는 전투원들을 형상한 미술작품 등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참관로정을 따라가던 우리가 이른 곳은 1211고지갱도모형이 있는 곳이였다.

그곳에는 전화의 나날 1211고지화선용사들의 투쟁정신과 랑만에 넘친 생활을 그대로 보여주는 화선야장간, 취사장, 일일창고, 병실, 탄약고 등이 꾸려져있었다.

그 어디에나 포연의 그을음이 서려있는듯싶었다. 화선병사들이 또 한차례의 적의 공격을 물리치고 부르던 전시가요며 화선악기의 유정한 음향이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갱도모형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가렬했던 조국해방전쟁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1211고지의 인민군전사들에게 얼마나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는가를 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언제나 우리 인민군전사들을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느날 자정도 넘은 깊은 밤에 어느 한 지휘관을 전화로 찾으시였다.

먼저 전투원들의 건강에 대하여 물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은 1211고지에서 싸우고있는 전투원들의 영웅적위훈에 대하여 만족스럽게 생각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전투원 한사람한사람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보배들이며 혁명전우들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벌써 선기가 나는것 같은데 전투원들이 더운밥과 따끈한 국을 먹도록 해주고 잠자리도 춥지 않게 해주어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그후 전선에 남새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아시고는 콩을 보내주시여 전사들이 콩나물도 길러먹고 두부도 해먹도록 해주시고 언제인가는 고지의 전사들을 위해 고등어도 보내주시며 그 보관대책과 료리방법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신 위대한 수령님,

1211고지전투가 얼마나 치렬하였는가는 누구나 잘 알고있다. 적들은 하루에도 수십차례씩 달려들었고 미제의 맹폭격으로 고지의 높이가 낮아졌다. 가렬한 전투로 날이 저물고 날이 밝던 이 격전장에서 식찬에 대하여 생각한 전사가 과연 있었던가.

그러나 우리 수령님께서만은 총포탄이 작렬하는 고지의 전사들의 식생활을 두고 깊이 마음쓰시였다.

이 불보다 더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 있었기에 1211고지방위자들은 나무 한그루 성한것이 없이 타버리는 불바다속에서도 불사조와 같이 웃고 노래부르며 고지를 지켜 용감히 싸울수 있었다.

조국해방전쟁사와 더불어 영원히 기록될 이 사랑의 력사가 어찌 1211고지방위자들만이 간직하고있는것이랴.

전사들에게 공급할 솜신발이 어떠한가를 알아보시기 위해 무더운 여름에 한주일나마 병사용솜신발을 신고다니신 사연, 몸소 가꾸신 밤나무에서 딴 밤을 전사들에게 보내주신 사실, 전화의 나날에 화선휴양소를 내오도록 하시고 한 인민군전사의 가족을 위해 력사에 없는 구출작전을 조직하도록 하신 전설같은 이야기…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는 이 위대한 사랑은 군인들모두에게 무한대의 힘이 솟구쳐오르게 한 원천이였으며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싸우는 무비의 용감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낳게 한 마를줄 모르는 영원한 샘이였다.

진정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인간애가 안아온 승리이기도 하였다.

우리 민족의 전설적영웅이시며 위대한 어버이이신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심에 휩싸여있는 참관자들에게 강사는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가 믿는것은 대포나 로케트와 같은 현대적인 무장장비가 아니라 사랑하는 병사들이라고 하시면서 병사들을 위한 끝없는 사랑의 전선길을 이어가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렇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이민위천의 사상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시고 언제나 우리 군대와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혁명활동의 순간순간을 불같은 동지적사랑과 희생적인 헌신으로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우리 조국은 불패의 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는것이다.

참관자들의 얼굴마다에는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 장군복으로 하여 끝없는 긍지가 어리여있었다.

참관을 마치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나서며 우리는 확신하였다.

사상도 령도도 풍모도 우리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전승의 력사는 영원히 이 땅에 흐를것이라고.

강 원 남

## 일본 오까야마현 일조우호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일본과 북남조선과의 우호를 추진하는 회 대표 미하라 세이스께를 단장으로 하는 일본 오까야마현 일조우호대표단이 26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대표단성원들은 이 력사의 집에 깃든 불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이밖에 대표단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문수물놀이장 등을 참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평양시 청년대학생들의 취주악과 전시가요대렬합창경연 진행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경축 평양시 청년대학생들의 취주악과 전시가요대렬합창경연이 26일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였다.

취주악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로 시작된 경연에서는 서시와 취주악대합창 《가리라 백두산으로》, 전시가요련곡 《조국보위의 노래》, 《결전의 길로》를 비롯한 종목들이 펼쳐졌다.

출연자들은 탁월한 군사사상과 독창적인 전법, 비범한 령군술로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깨여버리고 멸망의 시초를 열어놓으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청년대학생들의 얼굴마다에는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이 지녔던 조국수호정신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만장약하고 최후승리의 7.27을 기어이 이룩하고야말 철석의 의지가 어려있었다.

이어 노래 《발걸음》의 힘있는 주악이 울려퍼지는 속에 대렬합창경연이 진행되였다.

《해안포병의 노래》, 《진군 또 진군》 등의 노래들을 우렁차게 부르며 대학생들은 보무당당히 광장을 누벼나갔다.

평양시 청년대학생들의 취주악과 전시가요대렬합창경연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필승불패의 선군혁명령도따라 강성국가건설과 반미대결전에서 자랑찬 승리만을 떨쳐갈 수도청년전위들의 혁명적기개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 전국청년학생들의 전시가요경연 입선자들의 종합발표회 진행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경축 전국청년학생들의 전시가요경연 입선자들의 종합발표회가 26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소합창 《김일성대원수 만만세》로 시작된 발표회무대에는 녀성3중창 불후의 고전적명작 《축복의 노래》, 혼성2중창 《조국보위의 노래》, 바이올린독주 《결전의 길로》, 남성기타5병창 《전호속의 나의 노래》, 녀성독창 《아름다운 고향》을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침략을 물리치는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불멸의 전승업적과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이 지녔던 열렬한 조국애와 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는 백두의 혁명정신을 다시금 새겨주는 트럼베트3중주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녀성독창 《매봉산의 노래》는 관람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주었다.

녀성중창 《샘물터에서》, 남성독창 《얼룩소야 어서 가자》 등의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적들의 폭격과 포격으로 하늘땅이 불타는 속에서도 필승의 신심에 넘쳐 전시생산과 전선원호에 떨쳐나 전쟁의 승리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한 우리 인민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풍만한 정서로 감명깊게 형상하였다.

소합창 《가리라 백두산으로》,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로 끝난 발표회는 선렬들이 피로써 창조한 조국수호정신을 심장에 간직하고 선군혁명의 제1선참호와 사회주의대건설전투장들에서 세상에 자랑높은 청년강국의 주인공, 선군청년전위의 용맹과 기상을 남김없이 떨쳐나갈 계승자들의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청년동맹일군들과 평양시안의 청년학생들이 발표회를 보았다.

【조선중앙통신】

##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의 거점으로 새로 일떠선

# 신천박물관 개관식 진행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2돐을 맞으며 신천박물관이 개관되였다.

세기를 이어오는 반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가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철의 신념과 의지,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새로 건설된 신천박물관이 개관됨으로써 계급교양사업에서 전환을 가져올수 있는 튼튼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의 거점으로 훌륭히 일떠선 신천박물관 개관식이 26일에 진행되였다.

개관식장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자!》, 《미제에 의해 우리 민족이 흘린 피값을 천백배로 받아내자!》 등의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룡해동지와 김용진내각부총리, 렴철성 조선인민군 륙군중장, 관계부문 일군들, 건설에 참가한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에 기여한 단위 일군들, 창작가들, 신천박물관 종업원들, 신천군안의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개관식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사백어머니묘와 백둘어린이묘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그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최룡해동지가 개관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미제를 타승한 전승절을 계기로 신천박물관이 새로 일떠선것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반제반미계급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승리의 력사와 전통을 영원히 빛내여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필승의 기상과 불굴의 의지의 힘있는 과시로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미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신천땅에서 짐승도 낯을 붉힐 야수적인 방법으로 3만 5 000여명의 우리 인민들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의 포성이 멎은지 얼마 안되는 주체42(1953)년 8월 신천군을 찾으시고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의 침략적본성과 야수성을 온 세상에 고발하는 박물관을 일떠세우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신천박물관을 두차례나 찾으시고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의 거점답게 잘 꾸리며 그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더욱 빛내여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해 11월 신천박물관을 찾으시고 고기가 물을 떠나 살수 없는것처럼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떠나 우리 인민의 자주적삶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하여, 혁명의 승리, 사회주의승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신천박물관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새로 건설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박물관의 위치를 몸소 잡아주시고 여러차례에 걸쳐 설계와 형성안으로부터 미술작품창작과 내부전시, 구호와 안내표식에 이르기까지 정력적으로 지도하여주시였을뿐아니라 계급투쟁의 전초선에 서있는 인민군대에 건설을 맡겨주시였으며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였다.

신천박물관은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의 침략적본성과 야수성을 폭로단죄하는 력사의 고발장이며 불구대천의 원쑤들을 천백배로 기어이 복수하고야말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적개심의 상징이다.

원한의 밤나무골에 새로 일떠선 박물관과 새롭게 꾸려진 사백어머니묘와 백둘어린이묘, 애국자묘, 화약창고와 전 신천군당방공호, 대형부각상과 야외조각상, 복수결의모임터 등에서 참관자들은 신천의 원한을 기어이 풀고야말 계급의 칼날, 복수의 칼날을 더욱 예리하게, 더욱 서슬푸르게 벼리게 될것이다.

연설자는 신천박물관은 인민군대의 결사관철의 투쟁기풍과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에 떠받들려 일떠선 사회주의사상전선의 성새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아안은 군인건설자들은 단숨에의 기상으로 공사를 힘있게 내밀면서 여러가지 기술혁신안과 합리적인 공법들을 받아들여 박물관건축공사를 비롯한 방대한 건설과제를 불과 넉달 남짓한 기간에 해제끼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건설에 동원된 부대와 조선인민군 창작사, 만수대창작사를 비롯한 군대와 사회의 여러 단위들에서는 방대한 진렬전시, 미술작품창작과제를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훌륭히 수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현시기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전도, 조국의 운명과 관련되는 대단히 중요하고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연설자는 반미대결전이 더욱 격렬하게 벌어지고 전쟁의 준엄한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 우리 혁명의 주력으로 등장한 오늘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은 더욱 절박한 문제로 나선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여 반미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대전의 최후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이라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심장속깊이 쪼아박고 당의 의도대로 반제계급교양을 5대교양의 하나로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이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의 침략적본성과 야수성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으며 피는 피로써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투철한 반제반미계급의식과 주적관을 서리발총창처럼 간직하고 원쑤들에게 복수의 철추를 내리는 심정으로 강성국가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한다.

신천박물관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당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박물관관리운영사업을 당의 의도에 맞게 잘해나감으로써 인민군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계급적량식을 안겨주고 그들모두를 반미대결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데서 자기의 혁명적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계급교양판, 계급교양실들을 잘 꾸리기 위한 사업과 신천박물관을 비롯한 계급교양거점들에 대한 참관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며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특히 새 세대들에 대한 계급교양의 도수를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

연설자는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우리의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굳건히 수호하고 위대한 승리의 력사를 더욱 빛내이며 사회주의강성국가를 하루빨리 일떠세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개관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새로 건설된 신천박물관을 돌아보았다.

# 신천땅의 피의 원한을 새기고 미제살인귀들을 천백배로 복수하자

## 군민복수결의모임 진행

뜻깊은 전승절을 맞이하는 온 나라 천만군민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인민을 야수적으로 학살한 미제침략자들을 끝까지 징벌하고 영웅조선의 위대한 전승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여나갈 철의 의지로 가슴 불태우고 있다. 살인귀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이 신천땅에 남긴 피의 대가를 천백배로 받아내고 반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군민복수결의모임이 26일 신천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장소인 신천박물관 사백어머니묘, 백둘어린이묘앞은 천인공노할 미제의 야수적만행에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며 반미최후대결전으로 신천땅의 피의 원한을 풀고야말 복수자들의 멸적의 의지가 세차게 맥박치고 있었다. 모임장소에는 《미제살인귀들을 천백배로 복수하자!》,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자!》, 《미제에 의해 우리 민족이 흘린 피값을 천백배로 받아내자!》, 《피는 피로써!》 등의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근로단체책임일군들, 관계부문 일군들, 조선인민군 군인들,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조선인민군 군관 곽춘식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명령을 받들고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의 거점을 훌륭히 일떠세운 군인들의 가슴가슴은 두발가진 승냥이인 미제침략자들에 대한 솟구치는 분노와 천백배의 복수심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침략과 략탈로 비대해진 식인종무리들이 지금으로부터 60여년전 신천땅에 기여들어 가장 야수적인 방법으로 3만 5 000여명의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하는 귀축같은 만행을 감행한데 대하여 폭로하였다.

모범농민이라고 하여 사지를 찢어죽이고 산 사람의 머리를 톱으로 켜죽이고 생매장한 미제침략자들은 어머니와 아이들이 함께 있는것이 너무도 행복하다고 떠벌이면서 그들을 따로 가두어놓고 불태워죽이는 만행을 감행하였다고 격분에 넘쳐 토로하였다. 미제에 대한 털끝만 한 환상이라도 가진다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것이 신천땅의 피의 교훈이라고 하면서 그는 낭강도 미제와는 반드시 총대로 결산하는것이 바로 우리 백두산총대의 확고한 사명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총잡은 조국의 수호자들인 우리 인민군대는 총결산의 시각이 오면 서슬푸른 백두산총대로 침략의 원흉이고 악의 근원인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을 씨도 없이 모조리 죽탕쳐버리고 조국통일의 7.27을 기어이 안아올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강위성은 신천박물관이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의 천인공노할 야수적만행과 교활성을 만천하에 낱낱이 발가놓는 력사의 고발장으로, 우리 새 세대 청년들의 가슴속에 미제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원쑤격멸의 의지를 더욱 깊이 새겨주는 복수심의 발원점으로 되고있다고 말하였다.

지금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고립압살책동의 도수를 그 어느때보다도 높이고있으며 썩어빠진 부르죠아사상문화침투로 우리 청년들을 부패타락시키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선군청년전위들은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에 조국통일도 사회주의강성국가도 있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지니고 우리의 운명이시며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이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원한풀고 쓰러진 사백어머니와 백둘어린이들의 피타는 절규와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조선로동당 만세!》를 높이 웨친 신천의 애국자들의 모습을 잊지 않고 그들의 피값을 천백배로 받아낼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인간살륙을 도락으로 삼는 식인종무리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하여 한손에는 펜을, 다른 한손에는 총대를 억세게 틀어쥐고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맨앞장에서 받들어나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신천군 명석협동농장 관리위원장 전혜숙은 전승의 그날로부터 62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렀지만 여기 신천땅은 치솟는 분노로 잠들지 못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신천땅의 이르는 곳마다에는 아직도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의 피비린내나는 살륙만행의 흔적이 력력히 남아있고 그날의 령혼들이 원쑤들을 천백배로 복수할것을 부탁하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만을 들씌운 식인종무리들인 철천지원쑤 미제침략자들의 죄행을 준렬히 규탄하면서 이 땅의 한줌 흙에도 승냥이 미제를 단죄하던 수많은 인민들의 피절은 절규가 스며있음을 한시도 잊지 않고 더 높은 알곡증산으로 원쑤들의 반사회주의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릴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우리 인민에게 천추만대를 두고 씻을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미제침략자들을 이 땅에서 깨끗이 쓸어버리고야말 불타는 복수심을 안고 계급진지의 전초선에서 사는 신천농업근로자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들은 미제살인귀들과 끝까지 싸워 영웅조선의 승리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여나갈 철의 의지가 담긴 구호들을 힘차게 웨쳤다.

군민복수결의모임은 신천땅의 피의 교훈을 언제나 잊지 않고 우리의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굳건히 수호하며 사회주의수호전, 반제반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조선중앙통신】

ㄱ-511169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